

[1~10] 《느티나무에 부는 바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 이 책의 등장인물들이 한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 예준은 콩쿠르에서 수상하지 못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게임에만 빠져 지냈다.
- ㉡ 서윤은 엄마와 아빠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처지가 비슷해 보이는 길고양이를 보살폈다.
- ㉢ 서윤은 자신의 블로그에 댓글을 쓴 사람이 새엄마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끝까지 모르는 척했다.
- ㉣ 김불들이 할머니는 5개월여 동안 제대로 된 외출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손녀만 돌보아야 했다.
- ㉤ 예준은 서윤과 함께 느티나무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자신들의 공약을 적은 전단을 집집마다 붙이고 다녔다.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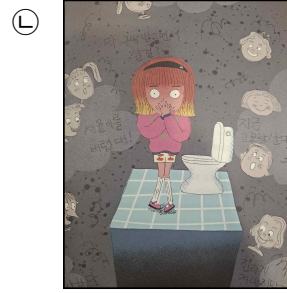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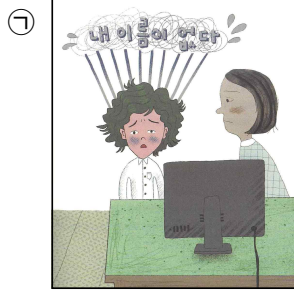
2. 느티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일만 고른 것은?

- ㉠ 서윤은 전학 온 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엄마와 아빠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 ㉡ 하굣길에 네로를 보자마자 신발주머니, 강통, 빈 생수병을 던진 아이들은 네로의 공격을 받고 도망쳤다.
- ㉢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시작한 예준의 바이올린 연주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을 집중시켰다.
- ㉤ 김불들이 할머니와 연우 엄마의 만남을 시작으로 ‘김불들이 할머니의 느티나무 뜨개질 교실’이 생기고 젊은 엄마들이 모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⑤)

3. ㉠과 ㉡에서 짐작할 수 있는 인물들의 공통된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 ① 황당하고 부담스럽다.
- ② 막막하고 답답하다.
- ③ 초조하고 불안하다.
- ④ 어색하고 쑥스럽다.
- ⑤ 놀랍고 당황스럽다.

(정답:⑤)

4. 아랫글을 보고 한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참고로, 투표율 90퍼센트였고요. 자, 이제 발표합니다. 찬성 45%, 반대 55%! 그러니까 반대가 앞섰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느티나무는 안 잘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 ①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그만큼 느티나무에 관심이 컸다는 의미이다.
- ②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10%의 아파트 주민들은 찬성표가 많이 나올까 봐 일부러 불참한 것이다.
- ③ 느티나무 자르는 것을 반대한 사람 중에는 느티나무와의 좋은 기억을 간직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 ④ 찬성이 45%라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 ⑤ 느티나무가 잘리지 않게 되었으므로 느티나무 아래에서 연주회도 열리고 뜨개질 교실도 계속될 것이다.

(정답:②)

5. 이 책을 소개하는 광고 문구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나무가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
- ② 나무 아래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
- ③ 나무와 속마음을 나누며 용기를 얻고 성장해 가는 이야기
- ④ 나무와 아이들, 고양이가 함께 펼치는 신비한 모험 이야기
- ⑤ 인간이 주변에 있는 자연과 교감하며 사는 모습을 담은 이야기

(정답:④)

6. 이 책을 읽고 쓴 독서 감상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나무를 돈의 가치로 조사한 예준의 설명을 들으니 자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가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 ② 예준, 서윤, 김불들이 할머니가 각각 겪은 일들이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 ③ 느티나무가 때로는 나무 요정 모습으로, 때로는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 예준과 서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나에게도 감동적이었다.
- ④ 느티나무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잘 드러난 ‘초대장’을 읽으며 자연의 시각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⑤ 나무를 자르자고 큰소리친 할아버지나 나무와 고양이를 괴롭혔던 아저씨가 느티나무에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애원하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정답:①)

7.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은?

- ① 서윤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 ②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깨달을수 있어요.
- ③ 서윤이는 한참동안 예준이를 흘린듯이 바라보았다.
- ④ 나무 하나 사라지는게 무슨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 ⑤ 예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기 뿐 아니라 교과목도 잘해야 했다.

(정답:①)

8. 이 책의 독자가 아랫글을 읽고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한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캐나다 퀘백에는 도시 곳곳에 뒷골목이 길게 뻗어 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뒷골목은 쓰레기 때문에 냄새도 고약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 칙칙한 곳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나서서 뒷골목을 동네 사랑방으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주민들은 골목을 깨끗이 치우고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집에서 탁자와 의자를 끌고 나왔다. 시 당국은 주민들의 생각을 높이 평가하며 그곳을 녹색 골목으로 지정하고 나무 심는 비용을 보태 주었다. 이런 동네 사랑방은 현재 250군데로 늘어났다. 아이들에게는 뛰어놀 곳이, 어른들에게는 이웃과 어울리며 음식을 나눠 먹고 여름을 즐길 공간이 생기면서 마을은 한층 풍요로워졌다.
 - 이웃과 어울리며 함께 보내는 곳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 질환이 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 밖의 다른 연구들도 서로 끈끈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 사람들이 잠도 푹 자고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좀 더 행복하게 지내려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 《이웃끼리 톨톨 뭉치면 무슨 일이 생길까?》(초록개구리), 재구성 -

- ① 김불들이 할머니가 젊은 엄마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은 퀘백의 마을처럼 정겨워 보인다.
- ②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공동체 문화가 있고, 더불어 사는 삶을 가치 있다고 여긴다.
- ③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뜨개질을 하는 사람들과 퀘백의 뒷골목을 사랑방으로 만든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 ④ 끈끈한 관계를 맺는 마을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로 만들어진다.
- ⑤ 현재 우리 사회는 공동체 문화의 전통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답:⑤)

9. 이 책의 독자가 아랫글을 읽고 생각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주인이 없거나 유기된 상태로 길거리와 들에서 살아가는 고양이의 사료를 정기적으로 챙겨 주는 일명 ‘캣맘’에 대한 논란은 광주 지역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광주시 동구 무등산 ○○아파트에서는 최근 길고양이 먹이 문제로 입주자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수년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밥을 주던 캣맘 입주민들과 반대 입장의 입주민 사이에 문제가 커진 것이다.

캣맘 입주민들은 4년 전부터 이곳에 사는 고양이 10마리에게 밥을 주고 겨울을 지낼 집을 마련해 주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10월 말 단지 내에 ‘아파트 내 길냥이 먹이 주기 절대 금지’라는 현수막이 붙으면서 문제가 커졌다.

이처럼 길고양이 급식 문제는 오래된 주민 갈등이다. 먹이를 주면 안 된다는 주민들은 길고양이 울음 소음, 배설물, 주차된 차량 망가뜨림, 쓰레기봉투 해체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밥을 줄 거면 배설물도 치우거나 본인이 키우면 되는 것 아니냐.” 등의 주장을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광주일보>(2023.12.13.), 재구성 -

- ① 캣맘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 ② 서윤과 할아버지가 갈등하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고양이 문제로 사람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③ 오랜 시간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캣맘이나 캣맘의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 중 어느 한쪽이 이사를 가야 한다.
- ④ 고모와 사는 서윤이가 네로를 쉽게 집으로 데려가지 못한 것처럼 캣맘들도 고양이를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이다.
- ⑤ 배설물이나 울음 소음 등 길고양이를 돌보는 데 생기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캣맘의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다.

(정답:③)

10. 아랫글을 읽고 이 책의 등장인물들이 보여 준 공감과 소통에 대해 나눈 이야기로 알맞지 않은 것은?

공감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느낌,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걸 말해.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기에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면 괜한 오해가 쌓이지 않고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어.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공감은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해 주고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게 해 줘. 나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은 또래가 있는 학교에서도 공감이 필요해. 나를 공감해 주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학교생활이 많이 외롭고 쓸쓸할 수 있어.

공감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며 친절하게 대할 때 그 사람도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게 돼.

- 《우리가 서로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픽), 재구성 -

- ① 예준은 방황하고 고민하는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따뜻하게 지켜봐 준 부모님 덕분에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어.
- ② 서윤 아빠는 자신의 재혼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서윤의 감정을 이해하고 서윤이와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야 해.
- ③ 서윤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공감하지 않고 자신을 따돌린 지민이 때문에 학교생활이 많이 외로웠을 거야.
- ④ 새엄마가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댓글을 썼더라면 서윤이도 새엄마와 빨리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을 거야.
- ⑤ 김불들이 할머니와 젊은 엄마들은 나이 차이는 많아도 아이를 키운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하며 친해진 거야.

(정답:④)

[11~20] 《수상한 저주 쪽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1. ㉠~㉥을 이야기 순서대로 정리한 것은?

- ㉠ 저주 쪽지를 받은 ‘나’는 지우가 보낸 것이라 확신하고 인형을 이용해 지우가 저주에 걸리기를 바랐다.
- ㉡ 지우가 자신의 비밀을 말한 사람이 ‘나’라고 오해했다며 사과하자 ‘나’도 그동안의 일을 말하며 미안해했다.
- ㉢ 지우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는 지우에게 전화하고 싶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았다.
- ㉣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진 것을 발견한 ‘나’는 지우에게 머리핀을 가져와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가 냉랭한 지우의 태도에 당황했다.
- ㉤ 콘서트장에서 만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가까워진 ‘나’와 지우는 외모도 서로 닮았고 취향과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해서 베프로 지냈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정답:⑤)

12. ‘나’의 가족에게 있었던 일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미용실 운영을 위해 은행에서 큰돈을 빌렸던 아빠는 또 대출을 받아 엄마를 화나게 했다.
- ② 남극으로 떠나게 된 엄마는 비행기를 청소만 했지 타고 날아 보는 건 처음이라며 좋아했다.
- ③ 탈모가 심해진 아빠는 모발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포기하고 민머리로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 ④ 엄마가 떠난 후 아빠는 홍보 전단을 만들고 간판도 새롭게 다는 등 미용실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 ⑤ 엄마는 남극의 오로라를 보며 작별 인사도 못 하고 영원히 이별한 ‘나’의 외할머니에게 사랑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정답:①)

13. 지우가 밑줄 친 부분처럼 말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하마터면 어금니에 끼어 있던 가래떡이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내 속도 모르고 보미가 실실거리며 웃었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셀카봉을 꼭 붙잡고 몸을 흔들며 대는 걸까.

“응? 사실 우리 엄마…….”

나는 말끝을 얼버무렸다. 다음 말이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보미야, 우리 지금 급하게 갈 데가 있어서. 내일 보자.”

옆에 서 있던 지우가 어색한 공기를 뚝 잘랐다. 그러고선 내 팔짱을 끼고 보미가 서 있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우리 엄마 진짜 직업을 알고 있는 지우를 결눈질로 바라봤다. 지우가 한쪽 눈을 감으며 윙크를 했다.

- ① ‘나’와 급히 갈 데가 있는데 보미 때문에 늦어질까 봐
 - ② ‘나’가 말을 주저하며 곤란해하자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 ③ ‘나’가 진실을 말하면 보미의 인터뷰 계획이 실패하는 게 미안해서
 - ④ 보미와 ‘나’가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는 게 두려워서
 - ⑤ ‘나’의 엄마 직업을 자신만 알고 싶는데 보미까지 알게 되는 게 싫어서
- (정답:②)

14. ㉠과 ㉡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 지우가 씹워 줬던 **황금 왕관**을 내가 먼저 벗어 버리기로 했다. 황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금방 찢어지고 마는 종이 왕관**이었으니까.

㉡ 지우가 말했던 것처럼 **설탕은 유통 기한이 없다**. 대신 **벌레와 습기를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 사이가 설탕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벌레가 생기고 습기가 차더라도 뭐, 관찮을 것 같다. 벌레는 걷어 내고 습기는 말리면 되니까.

- ① ㉠의 ‘황금 왕관’은 인기 많은 지우가 베프라고 해 줘서 뿌듯했던 ‘나’의 기분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 ② ㉠에는 베프인 지우와의 우정이 너무 쉽게 깨진 것이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나’의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의 ‘금방 찢어지고 마는 종이 왕관’은 처음부터 얇아서 오래 가지 못할 ‘나’와 지우의 우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 ④ ㉡의 ‘설탕은 유통 기한이 없다.’라는 것은 우정도 설탕처럼 정해진 기간이 없이 영원히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 ⑤ ㉡에서 ‘벌레와 습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우정을 지켜 가는 데 방해물을 조심해야 하고 방해물이 있더라도 잘 이겨 내면 된다는 의미이다.

(정답:③)

15. 이 책의 독자가 등장인물을 보며 한 생각으로 알맞은 내용만 모두 고른 것은?

- ㉠ 보미에게 다혜 엄마의 직업을 말하며 존경한다는 마음까지 전한 지우가 속 깊은 아이로 보였다.
- ㉡ 영화배우라는 자신의 꿈을 좇아가는 다혜 아빠가 영화배우로 성공하려면 미용실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 ㉢ 준형이가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할 때는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서 다행이었다.
- ㉣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진심을 전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일 텐데 그걸 풀고 더 단단한 우정을 만들어 가는 다혜가 대단해 보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정답:④)

16. 이 책을 읽고 쓴 독서 일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누가 저주 쪽지를 보냈을지 한 명 한 명 관찰하며 읽으니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
- ② 남극에 있는 ‘세종 기지’라는 이름과 세종대왕을 연결한 이야기가 엉뚱하면서도 재미있었다.
- ③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④ 어떤 일을 결정하기 힘들다면 지우처럼 혼자만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고 아무도 모르게 떠나 보는 것도 좋겠다.
- ⑤ ‘마음을 전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라는 작가의 말에서 사과나 진심을 전하는 말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답:④)

17. <보기>의 한자성어를 활용한 예로 알맞지 않은 것은?

- <보기>
- **일석이조**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
 - **봉우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함.
 - **학수고대**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 **전화위복**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 **유구무언**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

- ① 엄마가 빨리 돌아오시기만을 확수고대하였다.
 - ② 봉우유신이란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다.
 - ③ 여행을 통해 재미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면 일석이조다.
 - ④ 얼마 전 크게 싸운 것이 전화위복되어 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 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요구무언이다.
- (정답:⑤)

18. 문장의 짜임에 맞게 나눌 때 바른 것은?

	누가/무엇이	어찌하다/어떠하다
①	그때 아빠가 엄마와 내 손을	잡아끌었다.
②	쪽지를 들고 있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③	나는 심드렁한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④	어제 저녁에	지우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⑤	선생님 말을 듣던	준형이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다.

(정답:②)

19. 이 책의 독자가 아랫글을 읽고 보미를 비롯한 초등학생 유튜버들의 콘텐츠에 대해 생각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는 비결은 트렌드를 반영하고 대중적이며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좋은 콘텐츠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나만의 콘텐츠를 갖고 닦아야 합니다. 이때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슨 분야를 다룰지 정하는 것입니다. 평소 관심이 있고 잘하는 분야를 고른 후 시청자의 연령층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촬영 장소와 영상 순서 및 러닝 타임을 고려하여 촬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주변을 살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사회 현상과 트렌드를 배우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여러 사람과 소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성공과 수익, 구독자 수나 조회 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방송을 해야 합니다. 조회 수를 늘리려고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는 처음 구독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 《‘Who? 스페셜’ 도티》(스튜디오다산), 재구성 -

- ① 보미가 다혜 엄마를 인터뷰하려 했던 것은 승무원이 꿈인 주변 사람들의 장래 희망과 관련된 콘텐츠였기 때문이다.
- ② 보미처럼 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를 꿈꾸는 초등학생이라면 학교생

- 활이나 공부보다는 콘텐츠 개발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③ 보미와 같은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나 거짓 정보로 조회 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에만 신경 쓴다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없다.
- ④ 보미는 또래 초등학생을 시청자로 정하고 또래 친구들이 관심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콘텐츠로 삼았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빠르게 늘었을 것이다.
- ⑤ 청소하는 ‘나’의 엄마를 인터뷰하려는 보미의 콘텐츠는 화려한 직업 소개에만 머물러 있는 이전의 콘텐츠를 개선하여 직업의 가치를 폭넓게 다루고자 한 것이다.
- (정답:②)

20. 이 책의 독자가 아랫글을 읽고 ‘꿈’에 대해 한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꿈은 밥이나 휴식처럼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으니까 쉽게 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꿈에 다가가려면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당장 뭔가를 해 볼 수 없다면 책을 통해 간접 경험해 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고민만 하기보다는 되든 안 되는 일단 해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봐도 좋습니다. 끊임없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시도해 보고, 실패도 해 보면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확실한 꿈을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혹은 꿈이 너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내 꿈을 위해 천천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이것저것 찾는 시도를 해 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시도할 게 없다면 내가 늘 하는 것 중 몇 가지를 적어 보세요. 일부러 생각하지 말고 우연히, 갑자기,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적어 보세요. 그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천천히 나를 찾아가 보세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엮어져 꿈으로 형태를 갖춰 나갈지도 모릅니다.

- 《꿈, 지금 꼭 정해야 하나요?》(팜파스), 재구성 -

- ① 국어학자가 장래희망인 상미 이모는 국어국문과를 선택해 공부하며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 ② 엄마가 가라고 하는 모든 학원에 착실히 다니다 보면 지우는 원하는 꿈을 찾아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 ③ 헤어디자이너에서 소설가로 꿈을 바꿀까 생각한 ‘나’는 진정한 꿈을 찾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④ 아직 꿈이 없거나 너무 많아 고민이라면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잘하는 것을 찾아 실천해 나가면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있다.
- ⑤ 꿈을 찾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꿈이 결정되었더라도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정답:②)

[21~30] 《누리호의 도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1. 누리호와 관련하여 알맞은 설명만 고른 것은?

- ㉠ 누리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이고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만 만들어졌으며 로켓 전용 연료를 사용한다.
- ㉡ 누리호에 있는 큐브 위성들은 6개월에서 1년간 지구를 살펴보고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 누리호는 4단으로 이루어졌는데 발사 후 연료를 다 사용한 각 단은 자동으로 바다에 떨어진다.
- ㉣ 누리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공위성을 우주로 가져가 원하는 위치에 놓는 일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④)

22. 누리호가 발사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별로 정리한 내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 33시간 전: 발사 전 세밀한 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누리호를 발사대까지 빠르게 이동시킨다. ㉠
- 30시간 전: 누리호와 연결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엠빌리칼 타워 바로 옆에 누리호를 세운다. ㉡
- 28시간 전: 엠빌리칼 타워에 엠빌리칼 케이블을 연결해 누리호에 연료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
- 10시간 전: 다른 비행기의 비행을 금지하고 기상 환경을 점검하며 불이 나거나 다칠 것을 대비해 헬기와 구급차를 대기시킨다.
- 2시간 전: 엠빌리칼 케이블을 통해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제를 넣은 후 본격적인 발사 준비를 위하여 누리호를 일으켜 주었던 이렉터를 떼어낸다. ㉣
- 5초 전: 누리호가 스스로 엔진의 힘을 확인하면 누리호를 붙잡고 있던 고정장치가 풀리고 엠빌리칼 케이블도 자동 분리되면서 이륙 직전이 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정답:①)

23. 누리호의 각 단마다 산화제를 넣은 이유로 알맞은 것은?

- ① 각 단에 있는 연료에 불을 붙여 엔진이 힘을 낼 수 있게 하려고
- ② 성능 검증 위성 안에 있는 큐브 위성들을 순서대로 내보내려고
- ③ 누리호 맨 위에 있는 위성 보호 덮개를 떼어 내게 하려고
- ④ 누리호에 엔진을 공급하는 엄빌리칼 케이블을 분리하려고
- ⑤ 누리호에서 분리된 단이 바다에 정확히 떨어지게 하려고

(정답:①)

24. 이 책을 읽고 생각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순수한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 ② 누리호의 발사 과정이 그림과 함께 소개되어 있어 발사 현장에 직접 가 있는 것 같았다.
- ③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이 국력의 상징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 ④ 인공위성 발사 방법, 인공위성이 하는 일 등 우주 과학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⑤ 누리호 발사에 실제 참여했던 박사님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며 누리호는 수많은 사람의 연구와 노력으로 발사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정답:③)

25. 이 책을 읽은 어린이들이 독후 활동을 계획할 때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우주 시대에 도전하는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겠다.
- ② 로켓 발사에 성공한 다른 나라의 예를 조사해서 우리와 비교해 보겠다.
- ③ 방학 동안에 나로 우주 센터에 있는 우주 과학관을 방문해 봐야겠다.
- ④ 누리호가 발사되어 성공하기까지 박사님들이 한 일을 찾아보겠다.
- ⑤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한 후 SNS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해야겠다.

(정답:④)

26. 아랫글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할 때 의견에 해당하는 문장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고도 550킬로미터 궤도를 2년 동안 돌면서 지상을 관측할 거예요. ㉡큐브 위성 중에 한국 천문 연구원의 ‘도요샛’은 러시아 우주 발사체를 이용해 우주로 가려던 인공위성이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발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누리호를 타고 우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계 7번째로 실용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린 순간이었어요. ㉤대한민국도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할 거예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⑤)

27. ㉠을 참고하여 ㉡~㉣에 넣을 낱말로 알맞은 것은?

- 우주와 지구가 다른 모습인 이유는 지구를 지켜 주는 보호막인 (㉡) 때문
이예요.
→ ㉠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범위.
- 1단 분리에 성공해서 누리호 2단에 있던 (㉢)에 불이 붙었어요.
→ ㉠ 열에너지, 전기 에너지, 수력 에너지를 기계적인 힘으로 바꾸는
장치.
- 누리호가 계획했던 (㉣)까지 잘 도착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 ㉠ 행성, 혜성, 인공위성 따위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다른 천체의 돌레를
돌면서 그리는 곡선의 길.

	㉡	㉢	㉣
①	궤도	엔진	대기권
②	궤도	대기권	엔진
③	대기권	궤도	엔진
④	대기권	엔진	궤도
⑤	엔진	대기권	궤도

(정답:④)

28. 이 책의 독자가 아랫글을 읽고 우주 쓰레기에 대해 생각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은 그 쓰임을 다하게 되면 연료도 떨어지고 부품들이 망가져서 우주 쓰레기가 돼. 그러고는 우주를 떠돌게 되지. 현재 지구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은 7,000여 개인데 이 중 절반 정도는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마찰열 때문에 사라졌고 나머지 절반이 우주를 떠돌고 있어. 우주 쓰레기는 지구에 있는 광학 카메라와 레이더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크기가 너무 작으면 확인이 어려워.

떠돌아다니는 우주 쓰레기가 위성과 부딪히면 위성에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위성이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어. 우주 쓰레기가 많아지면서 우주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날 거야. 우주 개발이 활발해질수록 더 많은 우주 쓰레기가 생겨나겠지.

언젠가 중국에서 갑자기 텔레비전이 안 나온 적이 있는데 방송 위성이 우주 쓰레기에 부딪혀 고장을 일으킨 게 문제였어. 영국에서는 우주 쓰레기가 지붕을 뚫고 떨어져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어. 더 위험한 건 우주 쓰레기가 모두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 잘못 떨어지면 우리가 방사능에 오염될 수도 있다는 거야.

우주 쓰레기는 지구에 있는 쓰레기와 달리 치우는 데 특별한 기술과 장비가 필요해. 과학자들이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

- 《우주 쓰레기》(와이즈만북스), 재구성 -

- ① 인공위성이나 행성 탐사선을 개발하는 데만 치우치지 말고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해야 한다.
- ② 우주 쓰레기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모여 의논해야 한다.
- ③ 우주 쓰레기 처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처리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 ④ 우주 쓰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고장 날 수 있으니 우주 쓰레기를 치우기 전까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지 말아야 한다.
- ⑤ 방사능에 오염된 우주 쓰레기는 환경뿐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답:④)

29. 이 책의 독자들이 아랫글을 읽고 우주 개발에 대해 나눈 이야기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우주에서 작동하거나 생존하기 위한 기술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술로 활용되기도 한다. 화재 감지기나 무선 청소기, 무선 전화기는 우주에서 필요한 것이 일상생활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예이다. 우주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은 일상에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우주 관광, 우주에서의 광물 자원 채취, 우주로의 이주 등으로 관심이 확대되면서 우주 개발의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특히 점점 줄어드는 에너지를 우주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많은 나라가 우주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달에 매장된 것으로 밝혀진 헬륨-3은 1g 만으로도 석탄 40톤이 생산해 내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헬륨-3 100톤을 에너지로 활용하면 온난화, 공해, 방사능 문제 없이 인류가 1년간 에너지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우주 개발은 인류의 멸종을 불러올 수도 있는 소행성 충돌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소행성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 지구를 대신하여 인류가 살아갈 공간 등을 탐색하는 데 우주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YTN 사이언스>(2024.06.01.), 재구성 -

- ① 우주 개발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 주는 제품이 더 많아질 거야.
- ② 지구 온난화나 방사능 등의 문제 없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달에서 얻을 수 있다니 우리나라도 달 착륙선 개발을 서둘러야 해.
- ③ 점점 줄어드는 에너지 문제를 우주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면 화석 연료를 대신할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힘을 쓸 필요가 없어.
- ④ 아직은 일반인이 우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면 많은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이나 화성으로 여행 갈 수 있을 거야.
- ⑤ 지구 온난화나 소행성 충돌 같은 문제로 인류가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될 때를 위해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을 탐사하는 우주 개발도 중요해질 것 같아.

(정답:③)

30. 이 책의 독자가 아랫글을 읽고 떠올린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과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과학의 원리가 곳곳에 숨어 있지요.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결정해야 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식용유에 음식을 튀길 때 기름이 너무 뜨거워져서 불이 났다면 물을 부어야 할까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기름에 붙은 불은 물로 꺼지지 않아요. 평소 연소에 대해 알고 있다면 산소를 차단하거나 탈 물질을 없애거나 온도를 발화점 밑으로 낮추어 기름에 붙은 불을 꺼야 해요. 과학적 지식을 적절한 순간에 잘 활용하면 생활 속 크고 작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도 해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도르래의 원리로, 자주 사용하는 가위나 손톱깎이, 병따개는 지레의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과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여러 가지 기술이 탄생한 거예요.

과학은 우리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해 주어요. 과학은 항상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물음을 통해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연구가 필요한 현상이 너무 많아요. 이런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연구하기도 해요.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특수 첨가제를 넣은 아스팔트를 개발하거나 소나 닭의 배설물을 연료로 하는 에너지를 개발하기도 해요.

- 《왜 과학 공부 안 하면 안 되나요?》(참돌어린이), 재구성 -

- ①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 ②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며 연구에 몰두했을 것이다.
- ③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는 물건들은 모두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졌을 테니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빠짐없이 알아봐야겠다.
- ④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의 원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뿐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다.
- ⑤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과학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과학에 흥미를 가져 봐야겠다.

(정답:③)

[31~40] 《우리 숲을 살린 나무 과학자 현신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31. 현신규 박사가 한 일이 아닌 것은?

- ① 여러 종류의 참나무와 밤나무 씨앗에서 뽑아낸 단백질로 면역 반응을 끌어내는 연구를 했다.
- ② 다양한 종류의 소나무를 심고 과학자들을 모아 수목품종연구소를 열어 소나무에 관해 연구하였다.
- ③ 미국 연구원들에게 교배 방법을 배워 가며 리기다소나무와 테다소나무의 단점을 보완한 교배종을 만들었다.
- ④ 포플러를 개량해 물이 적거나 경사진 곳에서도 잘 자라는 은수원사시나무를 만들었고 이를 전국에 보급하였다.
- ⑤ 농촌진흥청장을 맡았던 동안에는 ‘전국 정밀 토양조사사업’을 벌여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 토양도를 작성하였다.

(정답:②)

32. 리기테다소나무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토질이 좋지 않은 미국의 탄광 지대에서도 잘 자란다.
- ② 솔잎혹파리나 송충이 등의 해충이나 여러 질병에 강하다.
- ③ 기적의 소나무라고 불리며 그 씨앗은 시드 볼트에 보관되어 있다.
- ④ 리기다소나무보다 2.5배 생장이 빠르고 추위에 강하며 곧게 자란다.
- ⑤ 쓰레기 매립지나 축산 폐수가 나오는 곳에 많이 심기를 권하는 나무이다.

(정답:⑤)

33. 아랫글을 처음 읽었을 때 현신규가 했을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누구든지 자기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고자 하라. 그 사명대로 살려면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곧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길이다.

- ① 어려워진 생활 형편을 살피고 집안을 일으켜야겠다.
- ② 임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 가서 학자가 되어야겠다.
- ③ 내가 한 실험의 결과를 누가 훔쳐 가더라도 끝까지 나무 연구를 해야겠다.
- ④ 정해진 법칙에 따라 나무를 연구하기보다 나만의 방법을 찾아 연구해야겠다.
- ⑤ 꿈을 포기하게 한 가정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임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정답:⑤)

35. 이 책의 독자가 현신규 박사에게 쓴 편지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하늘에 계신 현신규 박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초등학교 4학년 한우리에요.
박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은 제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나무는 자연에서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았는데 박사님
이 소나무 육종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 내신 거였어요. ㉡박사님
의 육종 연구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의 산은 여전히 험벗고 있었을지도 몰라
요. 하지만 ㉢박사님이 농촌진흥청장을 맡았을 때는 돈이나 벼슬에 욕심을 내
서는 안 된다는 옛 스승의 당부가 떠올라 후회했을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이 책을 읽으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 내려는 신념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박사님의 노력 덕분에 후배 과학자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 나무들
이 뽕뽕하게 자란 우리나라의 숲은 더 멋져질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편안하
게 계실 수 있지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안녕히 계세요.

2024년 8월 24일
한우리 올림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③)

36. 이 책을 읽은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읽기 전 제목을 보고 나무 과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예상해 보았다.
② 현신규 박사의 아들인 현정오 박사의 연구 내용도 찾아 읽었다.
③ 현신규 박사가 개발한 나무들 모습이 궁금해 찾아보며 읽었다.
④ 현신규 박사의 삶에서 배울 점을 생각하며 읽었다.
⑤ 현신규 박사의 업적을 정리하며 읽었다.

(정답:②)

37. 밑줄 친 말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소나무 개량을 연구한다고 들었습니다.
→ 나쁜 점을 보완하여 더 좋게 고침.
② 과학자들은 리기테다소나무의 생장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했어요.
→ 나서 자람. 또는 그런 과정.
③ 수익도 많이 나서 아이들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 돈이나 물품 등을 거두어들임.
④ 가문비나무들의 잔해가 발견되었어요.
→ 부서지거나 못 쓰게 되어 남아 있는 물체.

⑤ 그야말로 성공적인 형질 결합이에요.

→ 사물의 생긴 모양과 성질.

(정답:③)

38. 밑줄 친 낱말을 바르게 바꿔 쓰지 못한 것은?

① 교배대는 자리를 옮기면서 3만 개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 길어졌어요

② 자연 교배를 하자는 신규의 말에 누군가 물었어요. → 질문했어요

③ 더 빨리 자라는 나무를 이탈리아에서 발견했어요. → 찾아냈어요

④ 화산재를 주의 깊게 살폈지요. → 관찰했지요

⑤ 얼마 후 전쟁이 터졌어요. → 일어났어요

(정답:①)

39. [가]의 백승환 박사와 [나]의 현신규 박사에게서 배울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

누리호 1단 엔진 클러스터링 시험을 할 때가 기억이 남아요. 폭발 위험을 감수하면서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진행하거든요. 단계가 높아질수록 위험 요소가 커져서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최종 시험을 마치고 나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니 누리호 발사 성공까지 이루었어요.(백승환 박사 인터뷰)

- 《누리호의 도전》 -

[나]

- “우리나라 전국에 심을 수도 있겠어요. 이 정도면 기적의 소나무 아닌가요?” 그러나 신규는 고개를 저었어요. 추위에 잘 견디는 내한성을 좀 더 보완하여 지금보다 나은 품종으로 개량하고 싶었거든요.
- “하지만 교수님, 2대 잡종은 1대 잡종보다 우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멘델의 유전 법칙인걸요. 그래도 1대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신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연구하고 실험하는 이유는 그런 법칙들을 넘어서기 위함도 있지요.”
- 그동안 신규는 주로 자연림을 연구해 왔어요. 인공의 힘 없이 스스로 생장하는 산림이나 토양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육종학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황폐한 내 조국의 황톳빛 민둥산에는 초록 나무가 간절하니까…….’
- 리기테다소나무는 미국에서도 큰 공헌을 했어요. 종자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신규가 보낸 리기테다소나무 씨앗들이 메릴랜드주와 일리노이주 등지에 심겼어요.

- 《우리 숲을 살린 나무 과학자 현신규》 -

- ① 기존의 법칙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호기심과 상상력
- ②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가 되어 부와 명예를 얻겠다는 목표 의식
- ③ 만족한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연구하는 자세
- ④ 연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하려는 노력과 도전 정신
- 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연구하겠다는 마음가짐

(정답:②)

40. 아랫글의 우장춘과 현신규의 공통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우장춘은 교토제국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조선총독부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아 그들이 지시한 대로 농학실과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나팔꽃의 유전 연구와 겹꽃 피규니아 개발로 농학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일본인이라고 차별받았습니다.

박사가 된 우장춘은 모든 일을 과학에 기초해서 과학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유전학에 관심을 두고 배추와 같은 채소의 육종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지내면서 전국의 농촌을 살살이 둘러보며 비참한 당시 농촌 현실에 필요한 채소의 품종 개량에 앞장섰습니다.

우장춘은 육종 사업과 후진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고, 매일 아침 일찍 실습장으로 나가 채소와 꽃들에 파묻혀 살다가 늦게 귀가했으며 연구 성과는 함께 활동한 연구소 직원들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높은 직책에 눈길을 주지 않았고, 정부가 농림부 장관을 제의한 것도 거절하면서 한국의 고유 품종과 외래 품종을 이용하여 한국 풍토에 맞는 우량 품종을 찾아내고 그 종자를 대량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 《우장춘 종의 합성을 밝힌 과학 휴머니스트》(다섯수레), 재구성 -

*후진 양성: 같은 분야에서 자신보다 늦게 일하게 된 사람을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으로 길러 내는 일.

- ①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태어나 공부하면서 조선인이라는 차별을 받았다.
- ②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지 못했으나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 ③ 자신의 연구 성과를 과시하지 않고 후배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하도록 도왔다.
- ④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과학자로서 연구하는 데 몰두하였다.
- ⑤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육종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정답:①)